

임금체불 논란, 총파업 초읽기… ‘갈등 봉합’ 차기행장 관심

IBK기업은행 방향

‘총인건비제’ 임금체불 해결 촉구
오늘 결의대회, 내달중 파업 돌입

차기행장 후보에 내부인사 김형일
외부인사로 관료출신 도규상 거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의 방향을 가를 새로운 행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함께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는 급여나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정해 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책은행 이면서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 ‘임금체불’ 논란 키운 총인건비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1월중 실제 총파업에 돌입



기업은행 노조원들이 총인건비제에 따른 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 측은 총 인건비제 탓에 임금이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시간외 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은 직급별로 매월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시간외

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면서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외업무 줄이는 방향은 효과가 크지 않고, 총액한도 예외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 ‘파업 정국’ 속 차기 행장 변수

일각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전략을 펼칠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태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월 2일까지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행장으론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장 자리는 과거 관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내부 출신이 주로 행장에 임명됐다. 조준희(2010~2013)·권선주(2013~2016)·김도진(2016~2019) 전 행장과 김성태 현 행장 모두 내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흐름을 끊고 ‘관치금융’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은 적다

는 관측이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인사는 내부출신의 김형일 전무이사(수석부행장)다. 김형일 전무는 지난 2023년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에서 승진했다. 1992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30년 이상 전략기획과 경영지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외부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거시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는 내부나 외부 출신에 상관없이 자질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임추위 절차를 거치는데 기업은행은 감감이로 진행된다”며 “함량 미달의 정권 측근 임명, 보은 인사를 답습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따뜻한 금융 바탕, 생산·포용 모델 구축”

신한은행, 그룹 조직개편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책’ 기본구상
투자·대출 등 4개분과 추진단 발족
자회사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은 28일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 하기위해 그룹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신한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로,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PMO)’을 신설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초기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1월 해당 조직을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 위원회’로 격상해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해당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신한금융은 추진위원회, 분과별 협의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 위원회’로 격상해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해당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신한금융은 새해를 맞아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이 동참해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을 포함한 밸류업 3종 프로젝트를 더욱 고도화해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팽겨요 사업자대출과 ERP(전자적 자원관리) 뱅킹 등 그룹사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지역사회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용금융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이어갈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미래에셋생명 서울 우리마포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장애인 직업재활 ‘포장 봉사’

“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에 노력”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서울 우리마포 종합복지관에서 마포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을 돕는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업재활 포장 봉사에 참여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내 보호작업장에서 일손을 거두고 쇼파백 포장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에 동참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직원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금 사용 줄고, 개인·기업 보유액은 늘어

한은,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경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경우 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했다. 기업도 4년 전보다 현금 보유액이 2배 가량 확대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 지출

액은 약 32만4000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18만2000원(36%) 감소했다.

현금 지출액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인 8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 및 소득별로는 60대 이상(20.8%),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59.4%)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은 현금 지출 규모가 월 평균 112만7000원으로 지난 2021년(911만7000만원)보다 799만원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현금 지출 규모가 220만원으로, 4년 전보다 약 250만원 감소했다.

금리 하락,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개인

의 경우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2만1000원(25.6%)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 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간 격차도 지난 2021년 4만1000원에서 올해 2만8000원으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금 보유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업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지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508만3000원(108.3%)으로 확대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올해 마지막주 전국 11곳, 698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2월 마지막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69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 분양은 5873가구가.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용인시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신일비아프레스트(1·2단지)’, 울산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터엘아파트’ 등 10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서 ‘태화강센터엘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6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KTX가 정차하는 동해선 태화강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강북로를 통해 울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태화강변, 동천강변 산책로, 학성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내화초, 울산가온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연말 한 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2026년 1월 첫째 주(1/5~1/11)부터 재개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물금센트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